



F&M 은행로부터 여성경제인상을 수상받은 다나 이(가운데)씨가 샌디 토마스(왼쪽) 가든그로브 지점장, 헨리 워커 행장과 함께 포즈를 취했다

가든그로브 H마트몰 다나 이 매니저

F&M 은행 '올해의 여성 경제인상'

가든그로브 H마트 쇼핑몰 매니저 다나 이씨가 21일 F&M 은행가 수여하는 제 2회 '올해의 여성 경제인상'을 수상했다.

F&M 은행은 지난 해부터 어려움을 극복한 여성 기업가들에게 이 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이씨는 이번에 수상한 13명 중에서 유일한 한인이다.

F&M 은행측은 이씨가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시금 성공한 비즈니스 여성의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고 수상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986년부터 시아버지 이의섭씨, 남편 찰스 이씨와 함께 가든그로브 한인타운에 중고차 가게를

운영하며 성공가도를 걸었다. 92년에는 LA 한인타운에 유니온 자동차를 오픈했으며 95년에는 닷지 딜러십까지 획득하는 등 승승장구 했다.

그러나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경기침체 여파로 닷지사의 모회사인 크라이슬러가 파산보호를 신청하고 딜러십 정리에 들어가면서 지난 해 이씨도 딜러십을 잃고 비즈니스에 큰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이씨는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가족이 소유한 H마트몰 운영에 뛰어들어 비어 있던 자리에 한인마켓을 포함한 여러 업체를 유치, 100% 입점률을 기록하고 있다.

백정환 기자